

유 불란(서울대학교)

크게 나누어 ‘근대 중국의 발견’, ‘개성 유학의 전개’, 그리고 ‘실학’ 문제를 비롯한 개념적인 고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본 저작은, 신선한 접근과 치밀한 분석이 어우러진 주목할 만한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제3부 「신채호의 ‘아’ 개념의 재검토」 장에서의 의미망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보라. “의미론적 질서를 전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실체를 향해 곧바로 텍스트 밖으로 건너될 것이 아니라 아직은 텍스트 안에 머물로 그것의 언어적 양상을 끈기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노관범: 352)는 저자의 지적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 적절한 사례를 해당 장에서 발견하게 되었음을 밝혀 둔다.

그런데, 이렇듯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장들, 각 논고들의 논지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하나의 총체로서 본 저작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품게 된다. 이미 “기억의 역전”이라는 조어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듯, 저자는 “서양-근대/非서양-전통의 이항 대립, 또는 비서양의 전통 내부에서 ‘근대적인 변화’와 ‘전통적인 체제’의 이항 대립을 설정하고 근대 또는 근대적인 것을 검출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 근대주의”(노관범: 4)에 의해 편향된 “기억의 전도”를 대전제로 삼고 있는 듯 보인다. 물론 토론자 본인 또한 이 같은 그간의 도식적인 틀이 갖는 문제점 및 그 폐해에 대한 지적에 심분 동의한다. 더불어서 ‘전통 지식인’과 ‘근대 지식인’들의 문제의식과 사유에서 ‘중첩’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견해에도 또한 의견을 같이 한다.

그렇지만 이상을 전제로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그리하여 근대주의적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되살려 낸 당대의 전환기적 양상, 그 시대적 변화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이다. 아마도 이야말로 ‘우리의’ 근대라 할 수 있겠지만,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우리의) ‘근대’가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좀더 명확히 밝혀주기를 요청한다. 나름의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는 데는 기존의 틀, 기존의 전형성을 부정하는 것 이상의 명시적인 밝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어서, 이상에서와 같은 중첩성을 전제로, ‘연결’과 ‘위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몇 가지 소소한 질문들을 더해보고자 한다. 저자는 제3부의 「전환기 실학 개념의 역사적 이해」 장을 통해, 오늘날 조선 후기의 실학(‘실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정되다시피 한 실학 개념의 역사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각주를 통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그간 ‘실학’이 과학적인 설명으로서 보다는 근대의식 및 민족의식의 발로로서 성립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기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근대 학술 용어로서 ‘실학’의 등

장에 선행하여 근대 초기 한국의 대중 매체에서 근대 일반 개념으로서 실학의 생성”(노관범: 278) 문제에 착목한 본 저작에서의 접근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이로부터 저자는, 전환기(근대 초기)의 실학은 근대의 제도 변동과 연결되어 외연의 확장 및 내포의 변화를 겪으면서 “개념의 지역성”이 중층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여기에서의 실학은 마침내 조선시대 실학 및 근대의 ‘실학’ 개념과도 구별되는 나름의 독자적인 영역을 획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자 또한 이러한 결론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오히려 굳이 이렇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에 대해, 이런 각각의 실학들을 묶어줄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일까? 특히 저자가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전제한 우리의 근대에 비추어서는 어떻게 껴 ‘연결’지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제2부의 「개성 유학의 전개」를 통해 ‘위치’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필자에 따르면 그간의 조선시대 지성사에서 지역적 접근을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즉, “성리학과 실학의 분기를 조선 사회의 京鄕분기라는 사회구조적 추세에 대입시켜 지역적으로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노관범: 128)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러한 관심이 지역사적 맥락 그 자체에서 도출되기보다는 유학사 내지는 사상사적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저자가 입증해 낸 결론은 대단히 흥미롭다. 조선 후기 개성이 갖는 상업도시로서의 특색에 주목해 그로부터 실학과의 연계성을 강조해 온 통설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성리학 적 전통이 재개, 강화되는 가운데 근대 사회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관련해서 이미 저자 또한 개성 및 대구, 평양 등의 다른 도시 지역과의 비교사적 접근을 통해 “지성사적 지역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개성이라는 지역적인 사례는 전환기 조선의 근대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찌 위치 지어야 할 것인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부분은, 나아가 이 같은 유교 전통의 부흥과 이런 가치관을 담지 한 지역 주체들이 해당 지역의 전환기를 주도하게 되었을 때, 이런 그들의 특정한 ‘발신’은 지역적으로, 혹은 당대 조선에서 사상적으로 어떤 ‘반향’과 마주치게 되었을까.

마지막으로 다소 추상적인 차원에서 ‘독해’라는 문제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토론을 끝맺고자 한다. 예를 들어 같은 개념이라도 발화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 대목(노관범: 309), 혹은 특정한 키워드나 개념이 실제로 대중매체에서 얼마나 유포되고, 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조사”(노관범: 396)해 볼 필요성에 대한 지적 등을 고려할 때, 필자 또한 청자 측에서 그들이 ‘수신’한 메시지를 어떻게 독해할 지의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전환기를 통해 각 방면에서 등장한 독특한 의견들, 그 중에서도 중국인 내지는 현지의 재중 한국인들을 (일차적) 대상으로 한 박은식 등의 중국에 대한 견해는 당대 한국의 ‘일반적인’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가? 나아가 어찌 위치 지을 수 있는가? <끝>